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내용 개선 방안 연구

*Improvement of Curricula for Development of Birth
and Family Friendly Valu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

초·중등학생이 출산·가족에 대한 친화적인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관련 지식과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초·중등 교육의 과제 및 개선방안, 학교교육에서의 가치관 형성 교육의 의미, 가치관 형성 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등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였고, 초·중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분석하여 교육내용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과 관련성이 높은 초·중등학교의 도덕, 사회 및 가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출산·가족 친화적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학습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교과별 교수 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1. 연구의 개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인구 감소현상은 사회·경제·문화 부문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 시대를 맞이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야기되는 많은 문제 중 특히, 국가 경쟁력 약화는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향후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저출산·고령화 사회 상황을 개선하는 데 가장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 교육적 접근은 지나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양하고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고양시킴으로써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치관의 변화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적 접근을 통해 시도될 수 있으나 특히 학교교육을 통한 개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기와 사회적 책임감이 형성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학교교육을

통해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초·중등학생이 출산·가족에 대한 친화적인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관련 지식과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과 관련성이 높은 교과인 초·중등학교의 도덕, 사회 및 가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출산·가족 친화적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수 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상의 원인 및 실태를 분석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초·중등 교육의 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의 가치관 형성 교육의 의미를 탐색하고, 학교교육에서 수행되고 있는 가치관 형성 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둘째,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초·중등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 실태와 출산·가족 친화적 교육내용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고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교육내용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5

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도덕과, 사회과, 가정(실과)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출산 및 가족에 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내용을 탐색하였으며,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각 학교급별로 해당 교과서의 수업지도 자료 개발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여 각 학교급 및 해당 교과별로 출산·가족 친화적 내용을 담은 수업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2.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교육 내용에 대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학생 설문조사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중학교 1~3학년 학생,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사 설문조사는 도덕, 사회, 기술·가정(실과) 담당교사와 그 외 교과 담당 교사가 참여하였다.

1) 학생

(1) 출산 관련 내용에 대한 학교학습 실태

첫째,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양육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선택

하였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국력이 약화되거나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둘째, 출산 관련 내용은 주로 기술·가정(실과)(62.0%)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며 특별 활동이나 재량활동 등 교과 외 시간(31.0%), 과학(24.0%), 기타 과목(15.0%), 도덕(6.0%), 사회(2.0%), 외국어(1%) 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출산 관련 내용을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등 기타 교과 외 시간에, 중학교의 경우 기술·가정(실과)(62.0%)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

셋째, 출산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 후, 34.7% 학생은 '생명의 탄생과정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소수이기는 하나 5.4%의 학생들은 '출산이 사회나 국가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응답함으로써, 출산 관련 수업 내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상당수의 학생은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23.3%)', '출산과 육아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17.1%)',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고 재미없었다' 등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반응경향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평가는 감소하고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했는데, 이는 중·고등학교 출산 관련 교육내용의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2) 가족 관련 내용에 대한 학교학습 실태

첫째,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학생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

는 학생보다 약간 많았지만, 연령이 어리다거나 양부모가 모두 생존하는 학생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보였다.

둘째, 다양한 가족형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부모의 별거·이혼·재혼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 부모 가정이나 양 부모가 모두 계시지 않은 학생들은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셋째,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내용은 주로 도덕(83.0%), 기술·가정(실과, 58.0%), 사회(29.0%) 시간을 통해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국어(19.0%),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13.0%), 기타(9.0%), 외국어(영어, 5.0%), 과학(3.0%) 시간을 통해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배운 가족 관련 내용은 가족의 소중함이나 중요성, 가족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등이었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가족 관련 내용을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가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 후, 반이 조금 안되는 학생들(45.8%)이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했으며 몇몇 학생(6.2%)은 '가족 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가족 관련 수업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상당수의 학생(17.1%)은 '갈등 없는 이상적인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다르거나 식상한 이야기라서 지루했다(12.5%)' 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출산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

정적 평가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족과 관련한 학습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교 사

(1) 출산 관련 교육 실태

첫째, 거의 모든 교사들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문제에 대비하여 학교교육 내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더 나아가 교사들은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며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러한 인식 수준은 교직경력에 길수록, 출산경험이 있을수록 높았다.

둘째, 출산 관련 학교교육 실태에서는 전체 교사 중 절반(47%) 정도가 출산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산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내용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길러주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45.1% 교사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29.0%는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고 반응했으며 19.7%만이 '적절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교과서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기보다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 교사가 약간 더 많았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은 대체로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 학습자 수준 및 흥미 적합성,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도, 교육내용 분량의 적절성, 삽화, 사진,

도표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출산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은 수업 시의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은 교사(41.7%)들이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어렵다'(34.5%)고 응답하였다. 또한 일부 교사들은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달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당황스럽다'(13.1%)고 대답하였으며, 5.1%는 '내용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관 교육에 앞서 교사 연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출산(인구 포함) 관련 가치관 교육을 어떤 시간에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교사들은 사회(61.0%), 기술·가정(실과, 60.0%), 도덕(54.0%)를 선택하였고 그 외에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33.0%), 국어(11.0%), 과학(9.0%)순으로 나타났다. 출산 관련 가치관을 가르칠 때 초등학교 교사는 사회, 중학교 교사는 도덕이나 기술·가정, 고등학교 교사는 사회나 기술·가정 수업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출산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국가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이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3) 가족 관련 교육 실태

첫째, 가족 관련 학교교육 실태에서는 절반 이상(53.9%) 교사가 가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출산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학습자 수준 및 흥미 적합성, 소재의 시대성 및 현실성 반영, 교육내용 분량의 적절성, 삽화, 사진, 도표의 적절성)에서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우세하였다.

둘째,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개선방향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가치관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어떤 시간에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교사들은 도덕(75.0%), 기술·가정(실과, 52.0%), 사회(46.0%) 순으로 선택하였으며, 그 외에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29.0%), 국어(14.0%), 과학(4.0%), 외국어(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도덕과 사회, 중학교 교사는 도덕이나 기술·가정, 고등학교 교사는 사회나 기술·가정 수업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셋째,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내용의 개선방향에 대해 가장 많은 수의 교사들(67.9%)은 '출산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국가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28.0% 교사는 '저출산의 원인,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출산 및 가족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을 개선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54.0%의 교사가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9.1%)'와 '특정 가치가 주입되는 방향을 지양해야 한다(11.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넷째,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실시할 때 대부분의 교사는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하며(44.7%), 재량활동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 등 교과 외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25.2%)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15.4%)나 중학교(16.8%)보다 고등학교(24.3%) 교사는 교사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중학교(28.5%)나 초등학교(31.8%) 교사가 고등학교(19.4%)교사에 비해 재량활동(특별활동)시간에 활용할 지도자료 개발과 보급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교사들은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는 내용이나 분량, 소재의 시대성과 현실성 반영정도에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교사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학교교육에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시 적용할 수 있는 지도 자료 개발이나 보급, 교사 연수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관련 교육내용 분석 및 개선 방안

현행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출산의 중요성과 가족의 소중함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도덕과, 사회과 및 가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고 출산·가족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1) 도덕과

첫째, 초등학교 도덕과에서는 남성의 역할이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시키고자 하였으며, 가족의 화목이라는 가치 역시 지식보다는 내면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특정한 부모 가족이나 입양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장애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였다.

둘째, 중등학교 도덕과에서는 가족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가치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신장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활태도와 실천 의지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전통도덕에서 강조하는 도리와 생명존중 사상을 익히고 가정생활이 모든 공동체의 기본임을 인식하

도록 하였다.

2) 사회과

첫째,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대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의 사회구조를 탐구함으로써 시급한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식의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함양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검토하고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내용요소를 통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중등학교 사회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가족해체 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생 원인을 이해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3) 가정(실과)과

첫째, 초등학교 실과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지양할 수 있도록 가사노동의 평등모델을 제시하고 새로운 가정을 구성하기 이전에 장기적인 계획과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중등학교 가정에서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의 기본능력을 함양하고 관련 기술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결혼

과 육아과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맞벌이 부부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가족 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이나 친밀감 형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였다.

4.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지도 자료 개발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내용을 토대로 각 교과별로 개발된 교수-학습 지도 자료에 대해 간략히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첫째, 도덕과는 초등학생들에게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생명존중과 가족 간의 용서와 이해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2차시 분의 지도 자료는 6학년 2학기의 단원 중 ‘소중한 생명’과 ‘너그러운 마음’에 관련된 것으로, ‘소중한 생명’이라는 주제에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여러 활동 자료를 통해 습득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용서합시다’라는 주제에서는 가족 내에서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실천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 개발하였다.

둘째, 사회과에서는 인구 증가 및 인구 감소

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저출산 문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2차시 분의 지도 자료는 5학년 1학기의 단원 중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도시 지역의 생활’ 및 ‘촌락 지역의 생활’에 관련된 것이다. ‘도시 생활의 문제를 알아보아요’라는 주제로 도시화에 따른 생활의 불편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률이 감소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라는 주제로 촌락의 큰 문제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원인을 조사하고 인구의 감소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목표를 두어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셋째, 실과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편견없이 대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알고 서로 돕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2차시 분의 지도 자료는 모두 5학년 1학기의 단원 중 ‘우리의 가정생활’에 관련된 것이며, ‘가족의 다양성을 알아봅시다’라는 주제로 주변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알고 편견 없이 대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정의 일은 함께 해요’에서는 남녀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한 동등한 가족관계 및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데 목표를 두어 지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2) 중등학교

첫째, 도덕과는 우리 사회에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의 도덕,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과 판단력, 행복한 가정생활의 자세, 생명의 소중함과 미래 가정 설계, 우리 가족에 대한 이해 등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에 따라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5차시 분을 개발하였다. 이는 때에 따라 수정·보완되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도 사용되어 질 수도 있다. 특히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사고력, 도덕적 행동 등 인지, 감정, 행동 영역에서 고른 활동을 두어 도덕적 성장에 기여하려고 하였고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도덕적 가치의 내면화를 시도하였다.

둘째, 사회과는 인지적인 측면의 학습 목표를 강조하였다. 개별 학습 요소들에 대한 소그룹별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구변동의 과정, 사회 안전망, 가족 해체 현상 등 주로 사회학, 경제학, 정책학 등에서 축적되고 있는 중요 개념들과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법·제도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셋째, 가정과는 남녀 학생들에게 가족생활에 대한 이론의 학습보다 가정과 수업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실제 가정생활에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로 가정폭력,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 간의 소비 욕구 조절하기, 가정형성기의 생활 설계, 부모됨의 의미와 역할 등 다섯 가지로 선정하였다. 가정생활을 해나가면서 누

구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을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출산·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5. 학교교육을 통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실시를 위한 정책적 제언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은 어느 특정 교과에서의 교육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되는 모든 교과에서 유기적인 협력 하에 다루어져야 하며,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에서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향후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루도록 수업시수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 관련 내용은 제한된 교과에서만 다루어지고 있고 주로 지식 전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 친화적 가치관 형성에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 자료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

라서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면서 시대성과 현실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조 지도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성별이나 연령, 가족 구성 등 학생 특성에 따라 출산 및 가족에 관한 인식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이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출산·가족 친화적 내용에 대해 진부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에게는 출산과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미화해서 주입하는 방식보다는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 가족 갈등과 화해 등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넷째, 교직경력, 성별, 출산경험 여부, 담당교과 등 교사특성에 따라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에 대하여 상당한 인식 차이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교직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출산경험이 없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연수가 필요할 것이다. 교사 연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교사인식을 제고할뿐만 아니라 출산·가족 친화적 내용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수방법 향상을 목표로 해야할 것이다. 본문